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한국 스타 셰프 유현수 씨가 26일 보스톤대학에서 열린 한식행사에서 버섯냉면 조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현수 셰프, 보스톤에 한국 사찰 음식 소개

담백한 버섯냉면, 쉽게 만드는 굴림만두, 한식조리과정, 기사읽고 배울 정도로 쉽게 설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현아 기자 = 한국의 스타 셰프인 유현수씨(40)가 사찰음식을 한인들과 일부 미국인들에게 소개했다. 9월 26일 보스톤대학(BU)에서 열린 유현수 셰프의 한식 행사에는 약 40여명이 참여해 한식 조리과정을 보고 직접 맛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씨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능이버섯, 딱버섯, 동충하초, 꼬꼬리 버섯, 달래순, 산삼배양근 등 고가의 한국명품 식재료를 소개하고 직접 확실히 인도록 했다.

가장 먼저 참석자들에게 맛보게 한 것은 '찌간장(집간장)' 이었다. 유씨는 "간장이 한국음

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간장은 소화를 돕기도 하고 짠맛이 강하긴 하지만 그 안에 많은 맛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각을 돋구는 역할, 전식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장은 자체로도 완벽한 >>7면으로 계속



체이스뱅크 보스톤에 50여 지점 개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의 JP모건 체이스뱅크가 보스톤 진출을 선언했다. 자산규모로 미국내 최대 은행인 체이스뱅크는 23개주에 진출해 있었지만 그동안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체이스뱅크는 10월 1일 향후 5년에 걸쳐 뉴잉글랜드 지역에 60여 지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레이트보스톤 지역에는 50개의 지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새로운 도시에 진입할 경우 기존의 은행을 인수해서 기존 고객을 함께 흡수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 체이스뱅크의 진출은 완전히 새롭게 지점을 열고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

체이스는 보스톤지역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인천행항공권
보통가 \$989 부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미국내 여행 패키지	미국내 여행 패키지
그랜드캐니스 대서양가수 4일	\$370-일당료
미시시피 2주 5일	\$160-일당료
유네스코 문화유산 5일	\$470-일당료
미시시피 1주일 7일	\$690-일당료
미시시피 2주일 14일	\$1250-일당료

IACE TRAVEL 617.424.8956
월요일 - 일요일 10:00PM - 9:00PM EST. Toll Free 866-619-4223 info@iace-travel.com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십시오.
애나 정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S®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총영사관 행사 아닌 동포사회 주도적 축제돼야”

한인사회 첫 코리아위크 비교적 성공적 개최 평가 판소리, 시조 행사 등 한인들의 참여 저조에 아쉬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사회가 처음 경험했던 추석축제 코리아위크 행사가 29일 막을 내렸다. 개천절 행사, 한국영화, 시조판소리 공연, 유현수 셰프초청 한식행사, 하버드 한반도포럼, 필하모니아 공연 등의 행사가 보스톤총영사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리아위크 행사는 김용현 총영사가 부임 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며 총영사관의 전 직원이 총동원해 참여한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인들은 모두가 한국문화를 만끽하며 만족도를 표현했다. 참가한 외국인들의 만족도도 좋았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신과 무관한 행사로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쳤다는 점이다. 행사들의 특성상 인원이 제한됐던 측면도 있었고 처음 접하는 행사라 낯설어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좀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여야 할 것이다. 김총영사는 올해 행사를 훨씬 더 정교하고 큰 축제를 위한 마중물 행사 정도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행사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총영사관의 단독적인 주관 행사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김총영사의 생각이었다. 실제적으로도 코리아위크는 결국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축제가 되어야만 참여도나 연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김총영사는 코리아위크 행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더 나은 축제가 되길 바라는 반면 한인사회의 더 많은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올해는 총영사관 주관의 행사였다면 내년의 행사는 한인사회 단체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 문제는 그럴 만한 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한인회는 사라졌고, 한인회관 재산관리위원회

만 남아있다. 시민협회는 자체행사 진행만으로도 버거워하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로 평통, 시민협회, 노인회, 한미예술협회, 필하모니아보스톤 정도다.

현재 한인사회의 상황을 보면 그리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총영사관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갖고 코리아위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인사회의 관심과 요구다. 한인사회에서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요구는 더 나은 코리아위크 축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보스톤코리아는 코리아위크를 마감하는 29일 텃스데 행사장에서 김총영사에게 코리아위크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뷰는 10월 2일 뉴튼소재 총영사관에서 진행됐다.

코리아위크를 마감한 소감과 총평을 해달라.

이번 보스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리아위크 행사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한인동포 사회 관심,



김용현 보스톤총영사가 뉴튼 소재 공관에서 10월 2일 코리아위크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성원, 참석에 대해 감사드린다. 보스톤 코리아를 비롯한 동포언론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추석을 맞고 개천절 국경일도 되고 해서 한인사회에 축제 분위기를 진작하고, 미국내 한인 동포사회에 대한 인식, 존재감을 높이고자 행사를 추진했다.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인들도 비교적 좋게 평가했다.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처음 하는 행사로서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리아위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겠다는 점과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문화, 문화적 기여를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학생들 그리고 차세대 즉 동포 2세대들도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개천절리셉션에 한복을 입고 애국가와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미국국가를 불렀고 토요일 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 아리랑을 연주해 주었다. 또한 양윤모씨가 우리의 창작곡도 연주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코리아위크를 추진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어려웠던 점은 공간이 대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했던 점이다. 필하모니아 보스턴 한미예술 협회 등 한인 동포들이 지원해 주셨다. 그럼에도 총영사관 직원이 제한적인데 작은 공간에서 예산을 확보, 장소를 확보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

부임한 이후 코리아위크 포부를 밝히고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민원 업무 등 다른 업무도 있음에도 수고한 총영사관 직원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이번 행사를 위해 총영사관 내 데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각 행사별로 나눠서 준비했다. 이번 행사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있는 한인사회가 좀더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공간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개최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
시조 판소리 행사가 보스턴칼리지 법대에 멋있는 장소에서 열렸는데 학생들이나 한인동포들이 참석이 많지 않았다.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쉽

다. 미국 젊은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사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참석케 하느냐도 중요하다. (필하모니아) 콘서트도 아주 멋졌는데 제 생각보다 빈 자리가 많아서 아쉬웠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애정이 갔던 행사는?

아무래도 국경일 행사라는 것이 공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우리나라의 생일이다. 전통주, 바이올린 연주, 합창을 통해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문화도 소개했는데 많은 애착이 갔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가가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식을 좀더 정교한 고급한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그런 한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빔밥, 불고기 대중적인 두가지 측면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전통과 현대가 같이 하는 측면에서 콘서트도 많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코리아위크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되는지 궁금하다.

금년 행사를 되짚어 보고 성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한인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년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 시도를 해봤지만..... 나흘 동안 매일 행사를 갖는 것은 임팩트는 있을지

몰라도 매일 참여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행사를 하더라도 분산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내년에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데 고민해 봐야 한다. 아까 언급했듯이 총영사관 행사가 되기 보다는 한인 동포사회의 축제, 한인사회가 이커뮤니티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 다른 커뮤니티간의 소통 협력 대화 이런 것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한인 동포사회가 주도적이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좋은 행사를 잘 설명해 더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 좋은 행사를 놓친 한인들이 내년을 분명 기대할텐데 그런 측면에서 행사의 연속성을 다시 여쭙는다. 한인들에게 '코리아위크는 우리들을 위한 행사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도 사람들이 기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주 월요일은 행정원들도 모두 함께 해서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한인사회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하자며 독려하곤 했다. 직원들도 좋아하고 성과도 내서 보람을 느끼는데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에도 직원들을 잘 이끌어야 할 것 같다.

행사를 각종 한인단체와 협력해 진행



24일 보스턴소재 오공권클럽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 후 보스턴총영사관 전 직원들의 기념 사진(사진=보스턴총영사관)

하는 방법은 어떤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주관을 의뢰했지만 단체장님들도 그동안 한인회를 대신하느라 상당한 피로가 쌓여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올해에는 처음부터 부탁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마중물이 되어서 선수범하면서 내년엔 염두에 두고 브리핑도 하고 홍보했다.

여러 미국관계자들에게도 초청장

을 보냈는데 어떤 행사인지 몰라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뢰와 명성을 쌓아가면 앞으로는 더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길 바란다. 문화를 알리는 것은 예술협회 시민협회, 평통 등 공동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한인사회가 단합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코리아위크 피날레 행사로 29일 열린 필하모니아보스톤 연주회에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다 (사진=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필하모니아 보스톤 공연으로 코리아위크 대단원

'경복궁타령'과 '아리랑'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 협연
250여 참석자들 한인사회 오케스트라에 열렬한 성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총영사관 주관 코리아위크 행사가 필하모니아보스톤의 <평화로의 여정>연주로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헝가리, 보헤미안, 러시아의 역사에 배경을 둔 바르톡, 쇤베르크, 차이코프스키의 민족적 음악의 여정을 거쳐 한국의 민속음악인 '경복궁타령' 과 '아리랑' 에 도착했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과 보스톤 주재 한인성악가들이 장재혁 작곡가가 특별 편곡한 곡들을 협연했을 때 참가한 한인들은 가슴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또한 쏟아지는 박수에 필하모니아보스톤 오케스트라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합창단은 앵콜곡으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 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보스톤총영사관의 초대로 대거 참석한 외

국인 관객들은 '한국의 곡들이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었다' 고 감동을 전했다.

필하모니아 보스톤 장수인 대표는 " '평화로의 여정' 음악회를 통해 아름답고 깊은 의미가 있는 곡들, 특히 한국의 전통멜로디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뻐다. 아리랑을 멋지게 합창해준 NE한국학교학생들에 특별히 감사한다. 주보스톤총영사관이 주관한 첫 코리아위크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 고 전했다.

이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코리아위크 행사는 보스톤총영사관이 추석축제를 맞아 한인들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했다. 개천절 행사로 시작해 필하모니아의 피날레 음악회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용현 총영사가 29일 템스대 그라노프뮤직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김용현 총영사 평화 통일 강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용현 보스톤총영사가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 최근 9.20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보는 강연회를 27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보스톤 평통의 초청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란 주제로 템스대 그라노프뮤직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이었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평통위원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것을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당시 김총영사는 "새해들어 북한이 과거의 강경모드가 아닌 대화모드로 나올 것이라 예상은 말했었는데 올해들어 신년사 그리고 3차례의 정상회담 등으로 예측이 맞았다" 고 말했다.

약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진영 평통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총영사는 남북정상회담의 920평양선언문을 기초로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총영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

에서 15만명의 평양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총영사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부단장과 평화외교기획 단장을 역임한 북한외교 전문가다. 김총영사는 보스톤에 부임 전 5년 동안 매일 아침 한국의 각종 신문과 북한의 노동신문을 놓고 읽으며 정세를 분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총영사는 정상회담후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과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뢰의 우려, 판문점의 유엔사, 그리고 주한미군철수 문제, 남북한 경험 미 국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총영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요즘 같은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환절기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10월 스페셜 프로모션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무료증정

선물처음 소진시 프로모션이 종료됩니다.

천녹정 / 천녹돈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3+1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7회 모금 만찬

10월 14일 웰즐리 칼리지 클럽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문화와 예술을 뉴잉글랜드 지역에 소개하고 한인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의 연례 모금 만찬이 오는 10월 14일(일) 오후에 웰즐리 대학교 내의 칼리지 클럽에서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12년말에 설립되어만 6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옥, 회장 김병국)가 후원자들과 함께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의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이며, 예년처럼 만찬과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행사이다. 예술협회는 2018년에도 많은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했다. 2월의 보스톤 미술관 음력 설날 축제, 3월의 한국 가곡의 밤, 5월의 콩코드 도서관 한국 가정의 달 기념 행사와 공연, 8월의 메투엔 뮤지컬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및 보스톤 랜드마크 오케스트라의 삼고무 콘체르토 공연, 9월의 신경숙 작가의 번역 소설 신간 낭독회와 데이비드 매칸 교수의 한국 시조 강연 등이 있었는데 이전 보다 지역 단체, 교육 기관 및 문화



작년 모금 만찬 모습

계 인사들과의 협력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렉싱턴에서 10월 6일(토)까지 예술협회의 연례 미술전이 진행되고 있고, 10월에는 보스톤 아시아 영화제를 공동으로 후원하게 되며 11월에는 텡스 대학교에서 한국 국악원 단원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만찬에는 첼리스트 이지영 씨의 독주 및 한요안 작가의 작품 설명도 있을 것이며, 만찬의 참가비 및 모든 기부금은 한미예술협회가 취지에 맞는 행사를 펼쳐나가는 데 사용된다. 김병국 회장은 "앞으로 더

욱 알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다. **<행사 정보>**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만찬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 4시 30분 - 8시
장소: 웰즐리 칼리지 클럽 (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 Wellesley, MA)
참가 신청 및 문의: www.kcs-boston.org, 전화 781-367-5993
참가비: 1인당 \$100 (저녁 식사와 음악 연주 및 기타 행사 포함)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2018 정기 총회 13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이하 시민협회)가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계획과 준비를 위한 총회를 13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뉴튼 소재 성양푸안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새로운 이사들의 소개, 협회의 각종 활동 보고와 사업 계획 및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총회 후에는 차세대리더십포지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석 시민협회 수석 부회장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에 개최될 제 6차 연례 차세대리더십포지움 행사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다가가 제공된다.

시민협회는 2세대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인턴 후원 사업을 25여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 워크샵, 유권자등록과 선거참여 드라이브, 그리고 아시아 안(한인) 권익신장을 돕는 NE 지역 미국정치인을 위한 모금사업 등 활발한 정치참여 활동을 하고있다.

N.E. 시민협회 28차 정기 총회:
1. 일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6 PM
2. 장소: 성 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45 Ash Street Auburndale MA 02466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입국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로드아일랜드한인회 주정부단체로부터 3만불 지원 받아

문화 예술 다양성 홍보로 매년 1만불씩 앞으로 3년간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한인회가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지원 단체인 로드아일랜드재단(RIF)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3만불의 그랜트를 지원받게 된다.

로드아일랜드재단(Rhode Island Foundation)은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이단체는 2017년 한해동안 1700여 단체들에게 4천3백만불을 지원했다.

특히 로드아일랜드한인회는 로드아일랜드 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단

체를 후원하는 프로그램(RI-EAP)에 선발돼 지원을 받게 됐다.

2018년에는 로드아일랜드에서 총 19개의 단체가 RI-EAP그랜트를 신청했으며 4단체가 선택됐다. 그중 하나가 로드아일랜드한인회가 신청한 한국예술프로그램제안(Korean Art Program Proposal)이다.

RI-EAP는 한인회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총 \$30,000 (\$10,000/year)을 후원하게 된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이 후원금을 앞으로 3년동안 한인회관/문화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의 국악과 문화를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급하는데 쓸 계획이

다. RI-EAP Grant는 한인회 윤광옥(Angela Sharkey)이사가 주관해서 신청했다. 33이번 프로젝트는 윤광옥 이사가 주관하여 지상욱 총무와 함께 이끌게 된다.

33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는 RI-EAP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목적과 역할 등을 상세히 기술했고 또한 주요 행사를 사진과 함께 곁들였다. 이외에도 예산집행 내역, 한인회의 정관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재영 한인회장은 “영광스러운 그랜트를 받게 된 것은 윤광옥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임원들과 이사님들의 도움도 컸다” 며 “(심사위원



Maria Lopez De Leon이 축사를 하고 있다

로부터) 가장 크게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40여년의 역사와 그동안의 수많은 다양한 활

동들이 심사위원들께 크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 이라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골프와 만찬, 성대 동문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친목 골프와 만찬을 겸한 "NE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가 9월29일 토요일에 개최되었다.

멧두은 소재 히커리힐스컨트리클럽(Hickory Hills Country Club)에서 열린 동문골프대회에서 남녀 챔피언은 각각 서재교 동문부부가, 그리고 남녀 근접상엔 김찬웅 동문과 김은주님(명예회원)께 각각이 돌아갔다.

골프 후 동문들은 노스앤도버 소재 김성군회장 자택에서 바베큐 저녁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성균관대학의 위상과 캠퍼스 소식을 나눴다. 김성군 회장은 “건학 60년의 인의예지 건학 이념과 전통을 자랑하는 성균인 모두의 화합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고 밝혔다.



김성군 동문회장의 노스앤도버 자택에서 29일 바베큐 만찬을 가진 후 성균관 동문들이 함께 했다

보스톤 성대동문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성군 회장 (이메일: info@songkkimlaw.com 전화: 781-438-6170)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체이스뱅크 보스톤에 50여 지점 개점

▶▶1면에 이어서

첫 지점을 12월 중순께 데드햄(Dedham, MA)에 개점하며 이어다 운타운 크로싱, 쿨리지 코너, 백베이, 뉴튼센터, 워터타운, 사우스엔드 등의 순으로 개점한다. 2019년 말까지는 최소 12-19개의 체이스뱅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체이스 고객뱅크의 타선다 덕켓(Thasunda Duckket) 대표는 체이스는 결코 부유한 고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약 5분의 1 정도의 지점은 중저소득층 타운에 개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이스뱅크는 일부지점의 경우, 10명의 직원을 갖춘 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일부는 일반 지점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전통적 은행원 창

구가 없는 익스프레스 지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이스뱅크의 보스톤 진출은 그동안 보스톤 지역을 방문해 체이스뱅크가 없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표했던 한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체이스뱅크의 보스톤 진출은 과거 시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 관측이 든다. 특히 온라인뱅크가 대대적인 추세인 가운데 고객의 방문을 원하는 지점의 설치가 의외인 까닭이다.

과거 시티뱅크는 보스톤지역에 진출해 수년간 머물다 결국은 2015년 17개 지점을 모두 철수시켰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식 조리과정을 보고 직접 맛도 보는 참석자들과 이날 시연된 음식들

유현수 셰프, 보스톤에 한국 사찰 음식 소개

▶1면에 이어서
고 생각한다.” 는 유씨는 나눠준 간장을 가리켜 “7년동안 숙성시켰기 때문에 깊은 맛까지 느낄 수 있다” 고 답했다.

이날 첫 음식은 버섯냉면이었다. 한국의 버섯들과 메밀면 그리고 강판에 직접 간 배즙을 넣어 낸 담백한 냉면이다. 버섯은 낮은 불에서 천천히 익히며, 버섯에 씨간장(집간장)과 고춧가루로만 조리해 담백함을 더했다. 여기에 소금으로만 간한 백김치를 곁들여 냈다. 참석자들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다.

두번째 음식은 굴림만두였다. 두부와 아스파라거스로 속을 만들고 감자 전분과 계란흰자로 얇은 만두피를 대신했다. 적당한 크기(입의 크기)로 속을 문쳐 전분과 계란 흰자를 교차로 두 번씩 굴려 찌내면 맛있는 만두가 됐다.

만두와 곁들여 먹는 고명으로 나물 무침, 유현수식 된장양념(집된장과 호박, 양파, 건버섯으로 만듦), 케일에 덮힌 가재와 게살, 비트 피클, 잣소스, 검

은깨가루, 비트가루 등으로 맛과 멋을 더했다. 만두 위에는 산삼배양근으로 장식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았다” 고 답했다. BU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류화인 학생은 “셰프님께서 조곤조곤 재료에 대해 설명해줘서 좋았고 한국 사람으로도 사찰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거부감없이 너무나 맛있게 간도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같은 호텔경영학을 전공하는 여수진 학생은 “사찰음식을 몇 번 먹어봤는데 별로였다. 간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 무슨 맛인지 몰랐다. 오늘 음식은 외국인들한테도 간이 맞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어 좋았다”

유현수 셰프는 <드레유> 레스토랑을 가회동과 평창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쿡가대표,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한식으로는 미술랭 별을 받은 첫 셰프다.

ha.park@bostonkorea.com

<유현수 셰프와 일문 일답> “한식,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싶다”

-유현수셰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

김치찌개, 김에 쌀밥이다. 돼지고기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 넣기도 하고 김치만 넣기도 한다. (웃음) 김에 쌀밥의 경우 갖지는 흰쌀밥에 최상품 김으로 먹는다.

-보스톤 강좌를 사찰음식으로 정한 이유는?

우선은 제가 하는 요리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채식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또 한국의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사찰음식 하면 한국의 채식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어서 결정했다.

-사찰음식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수와 만두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국수와 만두는 외국사람들한테 익숙한 메뉴다. 그래서 선택했고 그중에 채식으로 하는 국수와 만두를 선택했다. 외국에 오래산 동포들, 외국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메뉴, 알고있는 메뉴지만 다른 스타일의 메뉴를 알려주고 싶었다. 원래 굴림만두는 한식에 있는 메뉴다. 그렇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이 모른다.

한국음식을 (소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점을 두는 부분은 쉽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식이 너무 어렵게 포장되지 않았나 싶다. 한국사람들한테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고 레시피도 복잡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걸 깨고 싶은 거다. 굴림만두 같은 것은 아주 쉽다. 문쳐서 감자전분과 계란흰자에 묻혀서 찌기만 하면 되니까

-만두속에 두부와 아스파라거스는 조합이 의외였다.

어차피 다 같은 채소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 재료여야만 한다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 기본적인 양념이나 시즈닝은 우리 집간장으로 직접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재료들은 현지에서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인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궁금해 한것은?

간장이다. 간장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한다. 간장 하면 기포만이 대명사가 되어있고 많이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 모두 간장이 있지만 사실 나라마다 간장이 모두 조금씩 달라서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독특한 맛이 있다. 저는 한식우월주의자, 한식이 세계 최고다. 이런 건 아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한국의 간장은 이런 맛이다. 이런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장맛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되게 임팩트가 강하니까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신선한다. 새롭다’ 라는 느낌이 든다.

-사실 외국에서는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외국사람들이 아는 한식은 비빔밥, 불고기 정도다. 더 방대하고 더 다른 느낌의 한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한식을 외국에서 알릴 기회가 있다면 꼭 그러려고 한다.

실제로 어제 (영사)관저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외국 분들이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유현수 셰프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한식세계화가 거창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셨던 분들, 오늘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뭐 ‘이런 경험을 했다’ 라고 이야기 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퍼지면 한국음식이 알려지는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방송하는 것도 그런 이 유가 있다.

한식을 대중들에게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너무 한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막혀버린다. 어려우면 일단 사람들은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멀어지고 연결이 되면 한식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다.

-보스톤에 사는 동포들 유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팁이 있다면?

김치찌개는 목은지로 해야 맛있는데 구하기 어려우니 김치찌개를 끓일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면은 봉지에 적힌 대로 끓여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다. 집에 재료가 많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넣기도 한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내 최고 초밥 전문점 12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에는 수백개가 넘는 초밥 전문점이 있다.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곳, 서양식을 가미한 퓨전 초밥을 즐길 수 있는 곳, 혁신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곳과 희귀한 생선회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곳,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 등 보스톤 내 다양한 초밥 전문점 중 요즘 각광받고 있는 12곳을 소개한다. 이는 보스톤 매거진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한 것이다.

Cafe Sushi
하버드 근처에 위치한 오랜 초밥 명소로 '베스트 오브 보스톤(Best of Boston)' 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 주방장 세이지 이무라는 2007년 부모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무라가 만드는 니기리는 신선한 생선 한조각의 맛을 꾸밈없이 담아낸다.

1105 Mass Ave., Cambridge, 617-492-0434, cafesushicambridge.com.

Douzo
백베이에 위치한 두오조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에 이자카야의 맛을 내는 곳이다. 에피타이저로 스위트 페퍼 문어 세비체나 훈제 하마



치 모짜렐라를 맛본 다음에 토로 할라피뇨 롤, 달콤한 된장롤로 배를 채우자. 특별한 날이라면 토로 에 캐비어와 매운 소스를 뿌린 XO 토로를 추천한다.

131 Dartmouth St., Back Bay, 617-859-8886, douzosushi.com.

Ebi Sushi
서머빌의 유니온 스퀘어의 수많은 레스토랑 중에서도 에비 스시는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오마카세 10조각에 \$38이며, 토치된 연어 배살이나 참치 타르타르와 관자가 올려진 서머빌 롤 박스를 추천한다.

5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617-764-5556, ebisushi.com.

Fat Baby
매끄러운 나무 판넬 인테리어와 사계 상그리아가 있는 팻 베이비는 퓨전 레스토랑이다. 마이크 쇼(Mike Shaw)가 운영하고 마이크 산체스(Mike Sanchez)가 요리하며 창조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흑마늘 오일에 버터 바른 관자와 지카마 살사를 넣은 요리 뿐만 아니라 매실 장아찌 모히토 등을 맛볼 수 있다. 시끄럽고 붐비는 분위기는 이 곳의 인기를 증명한다. 마키 월요일에는 \$27불에 롤이 무제한이다.



오빠스시

118 Dorchester St., South Boston, 617-766-3450, fatbabysouthboston.com.

Fish Market Sushi Bar
알스톤에 위치한 곳으로 이름과 달리 마켓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다.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캐터필러나 레인보우롤과 같은 친숙한 메뉴 뿐만 아니라 트뤼플과 푸아그라 니기리와 같은 고급 메뉴도 있다. 오마카세를 \$55에 판매하고 있다. 170 Brighton Ave., Allston, 617-783-1268, fishmarketsushibar.com.

Fuji at Ink Block
요리사 지미 리앙(Jimmy Liang)의 푸지 레스토랑이 2016년 사우스보스턴에 열번째 지점을 열었다. 잉크블록에 위치한 이 지점은 다른 곳의 푸지 레스토랑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플레이팅을 제공한다. 친숙한 메뉴와 오마카세까지 다양한 초밥을 즐길 수 있다.

352b Harrison Ave., South Boston, 617-936-

3282, fujiatinkblock.com.

Hojoko
평키한 칵테일과 합한 장식이 있는 이곳은 펜웨이에서 현재 가장 트렌디한 레스토랑 중 하나이다. 크리에이티브 유어 오운 스시 롤과 표고버섯 튀김, 오코노미야키와 같은 편안한 메뉴가 매력적이다. 와사비 롤렛을 판매하고 있는데 평범해 보이는 초밥 한접시 안에 와사비 폭탄 초밥이 숨어있어 먹는 동안 재미와 스릴을 더해준다.

1271 Boylston St., Fenway, 617-670-0507, hojokoboston.com.

Oishi
어린시절부터 요리사 텡 엔(Ting Yen)은 아버지의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픽업하는 생선의 신선도이다. '베스트 오브 보스톤(Best of Boston)' 상을 여러 번 >>9면으로 계속

유스그룹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민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퀸지 영생장로교회에서는 유스그룹을 인도해 주실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자격조건과 사례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이순우 (617.657.9798)
qysclee@gmail.com

교회 주소: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강력해진 이민정책 1일부터 본격 도입, 신청자 유의해야

▶▶8면에 이어서

수상했으며 짭짤한 하마치와 트뤼플 마키, 진짜 스노우 크랩을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롤과 같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1166 Washington St., South End, 617-482-8868, oishiiboston.com.

Oppa Sushi

한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초밥집으로 알스톤의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맛만큼은 고급행진 중이다. 불타는 알루미늄 호일 보트에 담겨 서빙되는 새우 튀김 롤인 파이어 브루인스마키는 감동적인 맛을 선사한다. 한국인들 사이



에서 한국 회와 가장 맛이 가까운 횡집으로 알려진 오파 스시는 초밥과 회뿐만 아니라 김밥이나 짬뽕라면 같은 간단한 메뉴 또한 선보이고 있다.

185 Harvard Ave., Allston, 617-202-3808, facebook.com.

O Ya

미국내 베스트 뉴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오야는 2007년 처음 문을 열었다. 화려한 사케 메뉴와 \$285에 달하는 오마카세 등,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방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훈제 와규 니기리와 트러플을 곁들인 관자회, 랍스터 다릿살을 이용한 니기리, 흰 철갑 상어 캐비어 등의 메뉴는 그 값을 한다. 현재 뉴욕에 지점이 있으며 조만간 체스트넛힐에도 분점을 열 계획이다.

9 East St., South Boston, 617-654-

9900, o-ya.restaurant.

Pabu Boston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 켄 토미나가와 마이클 미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밀레니엄 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보스톤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곳으로 돌돔과 금눈돔, 바라쿠다와 같은 귀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다.

3 Franklin St., Boston, 857-327-7228, michaelmina.net.



Uni

지하실에 위치한 작은 스시바가 2016년 세련된 이자카야로 확장한 이후로 요리사 켄 오리엔과 노니 메시나는 '베스트 오브 보스톤' 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받았다. 하인스 컨벤션 센터 MBTA역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바삭한 베이컨



조각이 올라간 랍스터 초밥과 캐비어가 뿌려진 성게알 초밥 등 혁신적인 초밥을 만나볼 수 있다.

370A Commonwealth Ave., Back Bay, 617-536-7200, uni-boston.com, sun@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이민과비자신청이 가장 부담스러워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새 이민정책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이민국(USCIS)은 1일부터 I-485(영주권신청서)와 I-539(비자변경신청서) 등이 기각되거나 허위서류 제출, 범죄 전과 등이 드러난 이민자에게 NTA(Notice of Appear)라는 이민법 정 출두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체류 규정 위반 등으로 비자신청이 기각된 이민자는 즉각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시점은 취업이민 신청(I-140) 단계가 아닌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I-539) 등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형사범죄자들은 출두 재판 대신 ICE에 체포된 후 추방 조치된다. 또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라도 형사 범죄 사실이 등이 발각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면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받게 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유학생 F, M 비자와 연수생 J 비자, 나아가 OPT에서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자가 종료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라며 “취업이민 비자(H1-B)

등이 기각된 경우 자칫하면 추방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해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등으로 돌아가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만에 하나 실수로 규정을 어기게 되면 재심의 신청 등 상황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이민신청 취소 후 다시 서류를 접수해도 기적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능, 개정안 12월 시행

(서울=연합뉴스)서한기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매리어트 호텔 직원들 파업

매리어트 호텔 직원 1,500여명 참여 호텔 영업하지만 일부 서비스 제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소재 매리어트 호텔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 거리로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매리어트 호텔 파업은 보스톤 역사상 첫 메이저 호텔 파업이다.

몇 개월에 걸친 호텔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후 파업이 결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자 보스톤 지역 최대 호텔인 매리어트 호텔 소속 직원 약 1,5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매리어트와 협상을 진행했던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26은 호텔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다. 보스톤 지역 내 30개 이상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표하지만, 이번 협상과 파업은 매리어트 호텔 직원들에게만 해당된다.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시애틀, 산호세, 샌디에고, 오클랜드, 호놀룰루 등 미국 전역의 매리어트 호텔에서 파업 결정이 내려졌고, 보스톤 지역에서 첫 파업이 시작되었다.

매리어트는 호텔들이 파업 중에도 정상 영업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어떤 서비스가 제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웨라톤 보스톤의 경우 “일부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매일 이루어지는 방 청소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는 내용의 편지를 투숙객들의 방문에 걸어놓기도 했다. 또한 호텔 내 레스토랑은 파업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웨라톤에서 벨맨으로 일을 했던

브라이언 랭 노조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호텔 산업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매리어트는 2016년 인수합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돈이 많은 호텔 회사가 되었다” 며 “그러나 매리어트 측은 직원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매리어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이 “실망스럽다” 며 “매리어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춰 지난 계약보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제안하고, 다른 혜택은 축소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지역 최대 호텔인 매리어트 호텔 소속 직원 약 1,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MA주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교사들의 급여는 각 학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급여 수준이 높은 학군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평균 연봉이 4만 5천 달러 정도인 학군도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교사들의 연봉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다. 매사추세츠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17학년도 기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78,70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북서쪽에 위치한 벌링턴 타운은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타운이다. 벌링턴 학군은 310명의 풀타임 교사에게 총 31,544,308달러를 지급하여, 교사 1명당 평균 연봉은 101,854달러였다. 벌링턴을 포함하여 매사추세츠 주의 5개 학군에서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섬 지역인 고스놀드 학군의 경우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45,212달러로 가장 낮았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단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보스톤 공립 도서관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 대여

21일 동안 데이터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주민들에게 무료로 와이파이 핫스팟을 대여해주는 시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보스톤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스톤 공립 도서관을 통해 핫스팟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의 데이비드 레오나드 관장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도전해보려고 한다”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진정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200개의 티모빌 핫스팟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제한은 없으며 2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오랫동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와이파이 핫스팟 대여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개념을 보다 확장한 것이다.

레오나드 관장은 “사람들은 데스크탑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도서관에 오곤 했다.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핫스팟 대여 서비스는 1

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버라이즌은 시험 프로그램을 위해 10만 달러를 출자했다. 버라이즌은 보스톤 지역에 광섬유 인터넷 케이블 서비스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대여해 간 사람의 인터넷 사용량을 추적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불법

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레오나드 관장은 “도서관은 검열과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스톤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200개의 티모빌 핫스팟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탈세논란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친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거액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인 탈세를 저질렀고, 현재가치로 모두 4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상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단 100만 달러를 받아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NYT는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환급 및 재무기록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형제들이 1990년대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세무당국에 부동산 자산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치밀하게 증여세·상속세를 탈세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남인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4억1300만달러 규모의 거액 유산을 챙겼다고 NYT는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세 때부터 매년 20만달러(현재가치)를 받아 8세 때는 이미 백만장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의 탈세 행각은 세무당국에 의해 일부 발각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10억달러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일가는 55% 세율을 적용받아 모두 5억5000만 달러를 내기도 했다고 NYT는 설



명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5220만달러를 증여세로 냈다.

NYT는 10만쪽 분량에 달하는 재무관련 서류를 근거로 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사 찰스 하더는 NYT의 취재 내용에 대해 "제기된 탈세나 사기 의혹은 100% 거짓"이라며 "NYT가 거짓 주장을 하는 데 활용한 자료는 매우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실패하고 있는 NYT는 내가 전에 본 적도 없는 무언가를 저질렀다"며 "그들은 '돈의 시간가치'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오래되고 지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게다가, 그들 이야기의 중 97%는 나에게 나쁜 내용"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미국 세무당국은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보도되자 곧바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세무국은 이날 AFP통신에 "당국은 NYT의 보도에 담긴 의혹을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조사 방법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미 전문가들 트럼프 취임 후 미일동맹 심각한 위험 노출

CSIS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안보·번영 위협"
"미국우선주의에 민주·법치 등 공통가치 훼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동맹 관계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나이 교수는 이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들과 함께 펴낸 보고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1세기 미일동맹의 쇠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비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은 흥정이나 거래의 상대로 여기고, 오히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 적극 다가서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간 동맹국들이 지켜온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무역, 법치 등의 '공통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하면, 미군의 한국·일본 등 해외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당사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 등은 미일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번 보고서에서 "균열이 시작된 동맹을 쇠퇴하려면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전

락을 지지해온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질서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번 보고서엔 동북아 안보협력 확대 및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일미군 및 자위대 기지의 통합운용과 △미일 간 합동기동부대 창설 등 제 시됐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의 합동군사훈련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 등은 "한국·미국과의 정상외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합동훈련이나 군사대비태세가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협상 카드가 되도록 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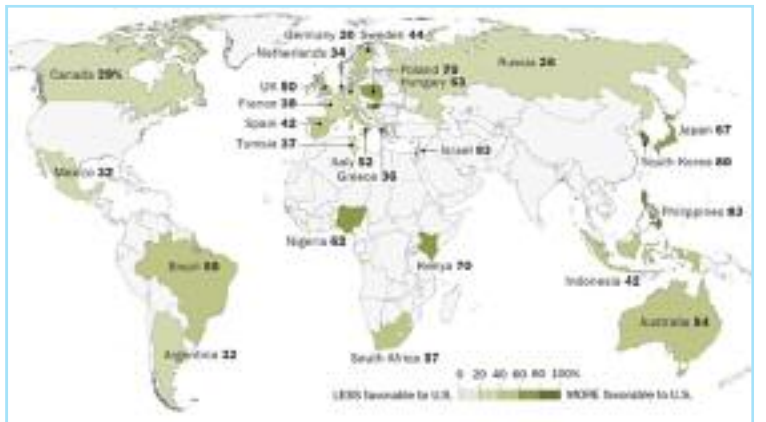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엔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장래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일 간 투자무역체제 도입,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 인프라 기금 창설 등도 미일 양국이 추진해가야 할 과제들로 꼽았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나이 교수는 각각 미 집권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안보전략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른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00년과 2007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로 나온 것이다.

ys4174@news1.kr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세계 25개국의 미국 우호도

한국 10명중 8명 미국에 호감 전세계 트럼프 신뢰도는 바닥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80%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인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한국인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17% 포인트 급증했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세계 주요 25개국, 2만611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한국 외에는 필리핀 및 이스라엘(83%), 폴란드(70%), 일본(67%) 순으로 미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을 가장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러시아였다. 러시아인 응답자의 26%만 미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인의 긍정 평가도 지난해 53%에서 올해 19%로 수직 하락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도가 40%를 밑돌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문제를 놓고 통상갈등을 벌여온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다. 멕시코 응답자 중 6%, 캐나다 응답자 중 25%만 트럼프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25개국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미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50%, 부정평가가 43%로 박빙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국한해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wonjun4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 일으킨 진짜 이유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 와해시키기 위한 것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40년 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전세계의 제조업 기지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체인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커버렸다.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무너트리는 것이며, 최근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됨으로써 이 같은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탈중국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일부 기업들이 탈중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중국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북미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신시킬 것이다.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탈 중국을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를 그 후보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새로운 협정 체결로 북미의 디지털 거래와 서비스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IT산업 협회의 부회장인 조시 칼머는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소식은 기술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특히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는 기술 기업에게 멕시코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새 북미자유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의도를 명백히 표출했다. 새 협정의 한 조항은 "만약 회원국이 비시장지위국, 즉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회원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sinopark@news1.kr



월스트리트저널(WSJ) 갈무리



중국 미국산 원유수입 전면 중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춘린 중국 초상국에너지수(CMES) 대표가 3일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 대표는 "해당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콩 글로벌 해운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운송업체 중 하나다. 무역전쟁 이전까지 사업은 순조로웠지만 이제는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세 대표는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일어났다. 선박사업에 확실히 좋지 않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두의 수입도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탓에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두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대두를 남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중

원유수출은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원유 등 에너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 석유 수입업체들은 신규 수주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중 원유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레피니티브 아이콘의 선박추적 통계에서도 9월 중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 원유의 운송이 전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 4월 1차로 중국의 제품 500억 달러에 대해 관세 부과를 단행했으며, 지난 지난달 24일 2차로 모두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지난 4월 5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6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관세부과 규모가 더 작은 것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해 올 경우, 중국산 모든 수입품(50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sinopark@news1.kr

GE, 신용 A등급 박탈 당했다...S&P, BBB+로 강등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P(S&P)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신용등급을 2일 'A'에서 'BBB+'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S&P는 "GE 전력 부문의 약세가 항공 및 의료 분야의 견실한 성과를 가렸다"면서 "최근 전력 사업 실적

에 관한 뉴스로 GE의 종합적인 경쟁적 위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와 피치 역시 GE의 전력 사업 악화를 이유로 GE와 금융계열사에 대한 등급하향을 검토중이다.

GE는 전날 전력사업부의 문제로

올해 수익과 잉여 현금흐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1년여밖에 재임하지 않은 존 플래너리 최고경영자(CEO)를 축출하고 래리 쿨프 이사를 신임 회장 겸 CEO에 임명했다.

ungaungae@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제주관함식에 日 욱일기 달고 입항? vs 아예 불참?

해군, 해상사열시 마스트에 '자국 국기· 태극기' 공지 정부, 게양 자제 요청...정치권 '욱일기 금지법' 발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입항할지, 아니면 아예 불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 모양의 해군기를 다는 것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주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내법 및 유엔 해양법조약 등을 들며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당연히 자위대 깃발을 달겠다고 말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도 다음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며 불참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11일 해상사열시 자국 국기를 중앙 마스트(돛대)에 게양하고 태극기를 그 옆 팔에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했다.

주최국에서 참가국에 이같이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강제성을 띤다. 다만 일본이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마스트에 달지는 않아도 함정 주변에 달 가능성은 있다.

일본은 이같은 해군의 요청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식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으로 불만의 뜻을 내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국민 감정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사열은 국가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건군 50주년인 1998년 경남 진해·부산에서 열렸고 10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08년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해상사열은 군함이 정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보통 군함이 정박할 경우 함수에 해군기, 함미에 국기를 다는데 이 경우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평화의 상징인 제주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항 거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게양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일본이 계속 욱일기 게양을 고수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군 당국 차원에서는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불러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일본이 관함식에 참석할 경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한 번 더 게양 자제를 요청하는 방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이 참가할 예정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등 전 세계에서 전범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2015년 해군 관함식에서의 해상사열 모습

법 등도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일본이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 11일 해상사열 때 참석하지 않겠다고 국방위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는 형법 등 개정안을 잇달아 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을 중심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 교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45개국 해군에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5 - OCT. 11, 2018

BIBIMBAP TARTS YOUR NEW LEGIT TARTS! PERFECT FOR PICNICS AND BENTO BOX LUNCHES! SATISFYINGLY SWEET!

H마트와 함께 만드는 너무 예쁜 비빔밥 모양의 과일 타르트! 맛도 모양도 색깔도! 어느하나 놓치지 않은 특별한 레시피로 달콤함을 맛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info@marketeatery.com

- Red Plum **\$1.49** lb
- Yellow Plum **\$1.79** lb
- Packed Garlic **2\$3** pkg./for
- Pineapple **\$1.99** ea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1.99** lb
- Red Seedless Grape **\$1.79** lb
- Kabocha **\$0.88** lb
- Navel Orange **\$1.99** ea/for
- Ginger **\$1.49** lb
- JINGA Tofu **\$0.99** Firm/Soft - koz/pkg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eef Eye Round (Chuck) **\$6.99** lb
- Chicken Drumstick **\$1.49** lb
- Sliced Pork CT Butt Steak **\$5.99** lb
-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7.99** lb
- Sliced Beef Short Plate **\$7.99** lb
- Marinated Sliced Beef Ribeye-Bulgol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6.99** 3.7-5 lbs. /pk
- Argentine White/Red Shrimp Skewers **\$5.99** 12oz
- Head-on Shrimp **\$5.99** lb
- Pollock Fillet **\$1.99** lb
- Conch Meat **\$9.99** lb
- Catfish **\$1.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NISHIMOTO Sekko Premium Medium Grain Rice **\$9.99** 15 lbs
- 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4.99** 2.2 lb
- SHIRAKUKU 100% Pure Sesame Oil **\$9.99** 548 cc
- AJINOMOTOX **\$2.99** 1.2oz

THE SMARTEST CARD OF ALL

모든 부류의 다양한 스마트카드를 하나 소지하게 됩니다. www.hmart.com

- SAMSU BARSAN Brown Rice **\$9.99** 15 lbs
- 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2\$5** 208 cc
- GOMPYO Wheat Flour **\$3.99** 5.5 lb
- SHIRAKUKU Japanese Style Saruho Udon Noodles **\$3.99** 2.75 lb
- PULM JUNE Noodles w/ Fire-roasted Black Bean Sauce **\$4.99** 20.2oz
- CHUNG JUNG ONE Lunchon Meat **\$2.99** 12oz
- BEKSUL Frying Mix Korean Pancake Mix **\$1.99** 86 cc
- BEKSUL Sweet Korean Pancake Mx **\$3.99** 14.1oz
- HAIOREUM Korean Style Popcorn **2\$3** 4.25oz
- DANYA Mochi Ice Cream **\$3.99** All varieties 12oz
- MAEL Biofeol Yogurt **\$2.99** 6oz x 25oz /pk
- I WANT Paper Towel **\$10.99** 12roll/3pk
- KIDULEZ Baby Plate **\$8.99** 184 x 227 x 45mm/Plastic - set
- KIDULEZ Spoon & Fork **\$5.49** 3pk/Plastic - set
- SUGAR LIP Rice Paddle (Lion/Squirrel) **\$2.49** 183mm x 113mm - set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 in thi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on a boar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ar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
H-MART BURLINGTON STORE: 1304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0290 | STORE: 10:3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내년 서울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할증 11시부터

노사민정전협의체 제안...요금추가 거리 10m 단축 사납금 6개월 동결...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서울=뉴스1) 이현일 기자 = 내년 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를 전망이다. 또 금액이 추가되는 기준거리도 현행보다 10m 가량 짧아 지게 된다.

2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인상 및 서비스 개선안을 결정,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4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인상폭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

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시작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

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 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와 함께 도입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 설정에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LPG 연료비 증가 등에 따라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했던 2013년보다 운송원가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



택시미레창조연대 소속 택시기사들이 8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 행위위를 하고 있다

났다. 시는 앞으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고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

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 결정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아직 인상폭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전좌석 안전띠 첫날, 90%가 미착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에 들어갔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차량 탑승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이날 경찰 계도활동을 접한 시민들은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귀찮기는 하지만 안전이 먼저"라며 새 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작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부터 계도활동을 벌인 서울종로경찰서 교통과 소속 임준혁 순경은 "홍보와 유인물을 접한 시민 대부분이 '당연히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정작 안전띠를 모두 착용한 차량은 10대 중 1대꼴"이라고 전했다.

종로경찰서 교통과 소속 이우나 경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보다는 사망사고를 줄이고 모든 시

민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목적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경찰서 교통경찰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주요 교차로나 도로에서 계도활동을 벌인 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편함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개정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예외 없는 의무'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찮다.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영업용 택시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사실상 택시는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띠 미착용 차량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차 유리를 질게 선탱해 밖에서는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없어 안전띠 미착용 차량만 골라 단속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함께 시행되는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에서도 한계가 지적됐다.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법은 주로 오르막길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가 바퀴를 비틀어 미끄럼을 방지하거나, 바퀴 밑에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ongchoi89@news1.kr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Price Reduced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 연매상 \$250,000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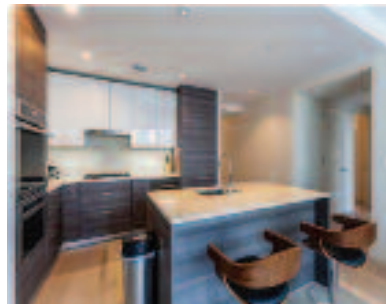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Condominium
1 Franklin St. Unit 1205
Boston, MA 02110
Asking price: \$1,725,000
Listing Agent: Clara Paik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
Boston, MA 02128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인공관절 수술 필요한 환자들에게 마코로봇 관절수술로 맞춤형 치료 가능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까운 병원을 찾기 마련이다. 진료를 통해 아픈 곳의 원인을 찾아 정확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때로는 아파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버티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이다.

많은 우리네 부모님들은 무릎을 두드리고, 밤새 파스를 붙이며, 끄끙 앓는 소리를 내실지언정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늙어서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치료 받아 봤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부모님들이 치료를 미루는 와중에도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심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무릎관절은 우리가 서고, 걷고, 달리고, 앉는 대부분의 동작을 담당하는 만큼 손상되었을 때 생활에 오는 불편함도 커지기 마련이다.

● 퇴행성 관절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인가?

관절은 몸을 움직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젤라틴 형태의 연골이 있어 뼈를 보호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러한 관절의 연골이 노화에 의해 닳아 없어지거나, 외부 충격, 연골의 변화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말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자 초기 증상으로는 통증을 들 수 있으며, 방치되어 악화되었을 경우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시작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료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생활 관리를 비롯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를 넘어섰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들 수 있다. 인공관절을 통해 증상을 개선 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같은 치료 효과로 인해 중기 이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하다.

● 인공관절 수술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인공관절 수술은 제 기능을 상실한 연골 부위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여 안전하면서 관절의 운동성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말한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종류는 다양하다.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수술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2000년대에 도입된 로봇관절 수술과 같이 최신 치료법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안전성과 효과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법으로 '마코로봇 관절수술' 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세란병원이 최초 도입을 하였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20여개국에 도입되어 우수성이 인

정된 치료방법이다.

마코로봇 관절수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아무리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인공관절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수술의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코로봇 관절수술은 수술 과정에서 확인 되는 미세한 차이를 즉석에서 반영하여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세한 차이까지 조정하여 맞춤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만큼 수술 후 일상 생활에 적

응하는 시간이 짧으며, 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관절 관련 질환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퇴행성 질환 관련 환자들은 다른 질환과 비교해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퇴행성 질환들은 방치할수록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특징이 있는 만큼 빠른 치료와 관리를 통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p> <p>ASKING \$1,490,000</p>	 <p>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p> <p>ASKING \$1,250,000</p>	 <p>북부 Boston의 성업중인 Drop Shop을 원하십니까? 단돈 \$50,000</p> <p>ASKING \$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p> <p>ASKING \$160,000</p>	 <p>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p> <p>ASKING \$10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p>Anna Jung 617.780.1675</p>	 <p>Sung Bin Oh 978.505.3736</p>
---	---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p> <p>ASKING \$168,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회장번호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포연맹	978-407-7554
국제대한교포연맹(NA)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포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인민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교회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침례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미음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펀	617-787-1735
헤어 크레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맥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논팩트덴탈서비스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이비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Veni, Vidi, Vici. 기원전 47년 줄리어스 씨이저가 폰투스의 파르나케스 2세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보낸 승전보에서 쓴 말이다.

라틴어는 단어의 어미로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종합어이다. 한 단어처럼 보이는 이 세 마디는 영어로 옮기자면 I came, I saw, I conquered.라는 세 문장이다.

‘오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는 venire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convene(모이다)이고, 그러한 대회를 convention(전당대회, 총회)라 한다.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intervene(개입하다)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venture(모험)이고, 그런 모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자금을 venture capital이라 한다. 미리(pre-) 오는(ven-)는 것은 prevent(예방하다)이고, 반대로(contra-) 오는(-vene) 것은 contravene(위반하다)이다. 대문자로 쓴 Advent는 예수의 강림, 즉 예수가 온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치는 희로애락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므로 ad-

venture라 한다. 한 때 결혼이 여자에게 adventure였던 시절이 있었다. 제인에어는 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어떤 adventure들이 닥칠지 몰라 불안했지만 모험을 했고 결국 불행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겪은 일들은 모두 adventure였으므로 책 제목이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이다. 톰 소여가 겪은 모험들은 The Adventures of Tom Sawyer가 되겠다.

vidi는 ‘보다’ 라는 라틴어 동사 videre의 과거형이다. 필자가 중학시절 자주 듣던 팝송 중에 Video killed the radio star.란 구절이 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돌(idol) 가수들은 노래라는 청각보다 비주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다. video의 /d/는 종종 /s/와 교체된다. video의 형용사형인 visible(볼 수 있는), visual(시각의), vision(비전) 등을 볼 수 있다. invisible(보이지 않는)은 부정접두사 in- + -visible의 결합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invisible hand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유명

한 말이 생각난다.

위에서 보는 것은 supervise(감독하다)이고,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 envision(상상하다)이다. 미리 보는 것, 즉 providence는 선견지명이고 통찰력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다. 멀리서 전해진 그림을 보는 것이 television이다.

vici는 ‘정복하다’ 란 동사 vincere의 일인칭 과거형이다. ‘승리’ 라는 단어 victory는 vincere의 과거분사형에서 온 것이다. 이 단어는 16세기에 강력한 해상 왕국을 이룬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름인 Invincible Armada에서도 볼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 Vincent 역시 이 단어에서 나왔다. 이름 그대로 빈센트 반 고흐는 사후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정복했다. 많은 화가들이 고흐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의 강렬한 색감, 과감한 생략, 길들여지지 않은 터치, 그 무엇 하나라도 고흐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 게다가 고흐는 세기적 화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역설적이지만, 세기적 화가가 되려면, 일단 가난해야 하고, 요

절해야 하며, 정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파블로 피카소처럼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고흐, 모딜리아니, 톨루즈-로트렉, 코코슈카 등의 천재적 화가들은 살아 생전의 비극적 삶을 사후의 찬사와 추앙으로 보상받았을 뿐이다.

필자는 Victor라는 러시아인 친구를 볼 때마다 그가 정말 승리자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영국의 Victoria 여왕도 뜻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승리자였다. 그러나 ‘승리하다, 정복하다’ 란 단어 vincere와 관련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빼놓을 수 없다. 금세기는 물론 생존 가수들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의 수많은 주옥같은 노래들 중 Ama Credi e Vai 말이다. Because We Believe란 영어제목으로 알려진 이 노래는 포기하지 말라, 승리하라, 우리는 믿는다는 내용을 가진 치유의 노래이다. “Che per vincere tu dovrai vincere” 약간의 의역을 하자면, “(승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언제 들어도 가슴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이 저며오는 노래이다.

지난주 [오르고의 영어잡설 31] 내용 중 톨스토이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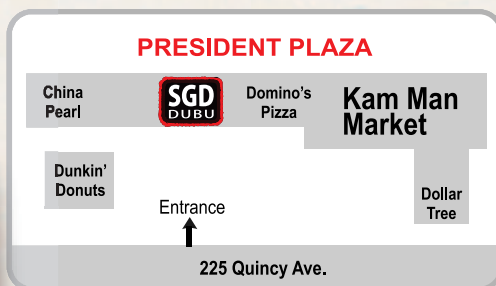


소공동

So Gong Dong Tofu & B.B.Q.

소공동 순부두, 보스톤 퀸시에 오픈!

“기존에 있던 한국 식당과는 차별된 품격있는 서비스와 음식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617.302.4646
225 Quincy Ave. Quincy, MA 02169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of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권 전통상 대어 (비양산, 등리)
한국 최대의 전통적인 전통상 대어,
오랫동안 내 가족에게 장수의 마음 전해주시고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가 꼼꼼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제품들만 권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가을맞이 Big Promotion

각각 20대 한정판매

INADA DREAMWAVE & PANASONIC MAJ7

일시불 구입시

미동체어 OR 반신욕기 OR 미룩스 LED 마스크

3가지중 하나 무료증정



INADA DREAMWAVE \$153 /월 60개월 + Tax

Panasonic MA J7 \$166 /월 60개월 + Tax



<p>명동마사지센터</p> <p>INADA NEST</p> <p>\$125 /월 46개월 + Tax</p>	<p>명동마사지센터</p> <p>INADA FLEX 3S</p> <p>\$125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73</p> <p>\$142 /월 48개월 + Tax</p>	<p>OREST 구입시 미룩스 LED 마스크 무료증정</p> <p>OREST OS 5000</p> <p>\$114 /월 48개월 + Tax</p>	<p>PANASONIC 30007</p> <p>\$100 /월 36개월 + Tax</p>
<p>POSITIVE POSTURE BRIO</p> <p>\$104 /월 48개월 + Tax</p>	<p>OSAKI OS Pro Maestro</p> <p>\$152 /월 36개월 + Tax</p>	<p>FUJIIRYOKI FJ 7900</p> <p>\$148 /월 36개월 + Tax</p>	<p>COZZIA CZ 710 Qi SE</p> <p>\$166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10</p> <p>\$83 /월 24개월 + Tax</p>

MILUX LED MASK
MADE IN KOREA

하이트론스
첨단 LED 기술로 탄생한
피부관리 제품 **미룩스** 판매

기원년부터 인류는 태양광을 이용해 우리 몸을 치유하고 힐링 시켜왔습니다. 미룩스 마스크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부에 이온음 진동을 주는 3가지 파장의 빛을 모아 마스크 타입으로 구성하여 피부톤, 탄력, 피지 조절 등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마술기입니다. 이제부터 소중한 당신의 피부 미룩스 마스크를 통해 손쉽게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빛으로 세포를 부활시켜 피부 속까지 탱탱하게!

\$40 /월 36개월

각질개선 피지개선 피부톤개선

할리우드 유명 스타가 사용하여 화제!
최다 192개 LED 장착!

임상으로 확인하는 놀라운 변화!

- 인체공학적 디자인
안면 축전 부위까지 넓게 빛이 가능
- 다른 제품과의 확실한 차별성
복합지 제어 가능

▶ 피부톤 개선에 도움
▶ 속탄력 개선에 도움
▶ 피부톤 개선에 도움
▶ 피지 개선에 도움
▶ 각질 개선에 도움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침실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magniflex

PANASONIC 리얼프로 EP MA70

파나소닉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진 세라믹 히터 온열 마사지가 탑재된 EP MA70은 전문가가 따뜻한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시원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부위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끔 '회전지압'을 포함한 5가지 기본 마사지 기법과 부위별 최대 108가지의 마사지 기법이 탑재되어 있다.

- 전신자동코스 - 3D 구동 지압장치
- 경추 마사지 기법 - 미세한 컨트롤러 탑재
- 44가지 손마사지의 전신 자동코스 기능

Panasonic MA J7 \$81 /월 60개월 + Tax

<p>HiTRONS 보스톤</p> <p>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p> <p>781-862-6867</p> <p>ORDER NOW www.hitrons.com</p>	<p>NJ Main Branch</p> <p>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p>	<p>Bethel Health - NY</p> <p>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p>	<p>Bethel Health - NJ</p> <p>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p>	<p>PA Branch</p> <p>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p>	<p>MD Branch</p> <p>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p>	<p>Mattress- NJ</p> <p>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p>
---	--	---	--	---	--	--

서인국X정소민 '일억개의 별', 관전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올 가을 안방극장을 습막하는 긴장감과 강렬한 로맨스로 흠뻑 물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이 드디어 오늘(3일) 기대와 설렘 속에 첫 포문을 연다.

3일 오후 처음 방송되는 tvN 새 수목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연출 유제원/극본 송혜진/이하 '일억개의 별')은 괴물이라 불린 위험한 남자 무영(서인국 분)과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 진강(정소민 분) 그리고 무영에 맞서는 그녀의 오빠 진국(박성웅 분)에게 찾아온 충격적 운명의 미스터리 멜로.

특히 '일억개의 별'은 제33회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 어워즈 8개 부문을 석권한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작으로 국내외 드라마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시키고 있다. 여기에 유제원 감독-송혜진 작가의 의기투합과 함께 서인국-정소민-박성웅-서은수-장영남 등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 환상적인 시너지를 발산할 전망이다. 이에 충격적 운명으로 얽힌 두 남녀의 강렬한 로맨스와 의문의 살인사건을 둘러싼 두 남자의 격렬한 대립 속으

로 끌어들이게 될 '일억개의 별'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본다.

충격적 운명으로 얽힌 서인국-정소민 미스터리 멜로

'일억개의 별'은 충격적 운명으로 얽힌 서인국-정소민의 위험한 로맨스로 안방극장에 강렬한 설렘을 선사할 전망이다. 서인국은 극 중 살인용 의자이자 자유롭고 위험한 괴물 김무영 역을, 정소민은 괴물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던 여자 유진강 역을 맡아 설렘과 심쿵의 무한질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더욱이 서인국은 운명 같은 정소민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그녀를 지키고 싶어하는 착한 괴물의 변모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것을 예고한다. 이에 다양한 캐릭터로 한계 없는 연기력을 증명하고 있는 서인국-정소민의 연기 변신과 함께 서인국이 표현할 김무영의 아누스 매력, 그의 유일한 안식처로서 정소민이 보여줄 유진강의 아름다운 비주얼과 순백의 매력을 기대하게 한다.

멜로 장인 유제원 감독x감성 필력 송혜진 작가의 의기투합

'일억개의 별'은 유제원 감독과 송혜진 작가의 의기 투합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지금껏 단 한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일본의 탐배우 기무라 타쿠야 주연 드라마의 첫 한국화라는 사실까지 더해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유제원 감독은 "원작을 다르게 해석하고 연출하기보다 원작에서 좋게 봤던 부분들을 충실하게 구현해 미스 없이 연출하려고 했다"며 "특히 원작 캐릭터 안에서 우리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바, 이에 특유의 세련된 영상미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유제원 감독과 공감이 살아 숨쉬는 감성 필체를 선보이는 송혜진 작가가 만나 탄생시킬 미스터리 멜로는 어떤 모습일지 관심을 모은다.

의문의 살인사건 속 서인국vs박성웅 심장 쫓길 대립

'일억개의 별'은 의문의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과 서인국-박성웅의 격렬한 대립으로 매회 시청자들의 숨땀을 유발하는 긴장감과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웅은 극 중 정소민의 오빠이자 괴물의 눈빛에 흔들리는 형사 유진국 역을 맡아 탄탄한 연기력



과 남다른 아우라를 발휘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첫 만남부터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한 존재감을 뽐내는 서인국과 그의 눈빛에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박성웅, 향후 이들이 얽히고설키며 그려나갈 관계는 '일억개의 별'의 중심축을 든든하게 지키며 흥미진진한 재미를 높이는 동시에 주된 시청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제작진은 "'일억개의 별'은 충격적 운명으로 얽힌 두 남녀의 로맨스와 두 남

자의 팽팽한 대립, 촘촘한 서사에 힘을 더하는 섬세한 영상,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스토리를 담았다"며 "흡입력 있는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과 멜로 장르에 최적화된 제작진이 만나 지금껏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미스터리 멜로를 선보일 예정이니 3일 오후 9시 30분 '일억개의 별' 첫 방송에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은 3일 오후 9시 30분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10월 7일 - 10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쥐띠 한 단계 발전하게</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 애정: 찬스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7, 11일 길일, 8, 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소띠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용기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범띠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금전: 당분간은 큰 옥석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토끼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많겠습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용띠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사업상으로는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운세입니다. 직업운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동수가 있습니다. ●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의 반가운 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뱀띠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 금전: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 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더 이상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말띠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지기 쉽고 기반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3일 길일, 11,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양띠 해결의 실마리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고가던 때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원숭이띠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가급적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닭띠 뭔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의 일치성을 보여야 좋은 점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뭔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면 안 됩니다.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 한잔을 마셔도 이용이면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2일 길일, 11,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개띠 더 힘껏 노력해야</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3일 길일, 11,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0f0f0;">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5px 0;">돼지띠 미리 낮춰서 바라면</p>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 운수: 스스로의 감정조절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유지해 오던 것을 그만 둘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2일 길일, 7, 1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7
장수갈비에서 일할 웨이추레스(Full Time, Part Time) 구합니다. .
T. 781-272-3787

8/17
알링턴 미스터 스시에서 파트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T. 781-308-2073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채용 공고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 1) 영주권, 시민권자, 미국내 취업 가능자
-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1년,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 재택 근무 가능

근무소입: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newenglandkac@gmail.com, 2018년 9월30일까지 이력서 접수, 접수 후 개별통보.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최고의이혼' 차태현X배두나X이엘X손석구

4인4색 케미 폭발

(서울=뉴스1스타) 강고는 기자= '최고의이혼' 출연 배우들의 케미가 폭발했다.

오는 8월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최고의이혼'(극본 문정민/연출 유현기)은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리는 러브 코미디다. 차태현 배우, 배두나, 이엘, 손석구 등 매력적인 배우들의 캐스팅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고의이혼'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바로 4인 4색 캐릭터들의 '케미스트리'다. 극과 극 성격의 부부 차태현(조석무 역)과 배두나(강휘루 역), 속마음을 감추고사는 부부 이엘(진유영 역)과 손석구(이장현 역), 이들이 만나 서로

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성장하는 이야기가 신선한 재미와 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일 '최고의이혼' 주인공들의 케미를 미리 만날 수 있는 티저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뜻밖의 브로맨스와 워맨스를 폭발시키고 있는, 두 부부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고 있다.

먼저 차태현과 손석구의 만남은 의외의 브로맨스로 눈길을 끈다. 극중 첫사랑 이엘의 남편인 손석구가 궁금한 차태현,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서지만, 오히려 손석구가 더 적극적으로 차태현과 친해지려 한다. "왜 자주 여기 와요?"라고 톡톡 쏘아붙이는 차태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도 친구해요"라고 웃는 손석구의 호흡이 유쾌한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배두나와 이엘의 관계도 흥미를 높인다. 차태현의 극중 전 부인과 전 여자친구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 궁금증을 모으는 것. 노래방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어, "남편의 전 여친과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 배두

나, "난 휘루씨 좋아요"라고 말하는 이엘의 모습이 두 여자의 평범하지 않은 케미를 기대하게 만든다.

한편 '최고의이혼'은 오는 8월 1일 오후 10시 KBS 2TV에서 처음 방송된다.
ichi@news1.kr

'라스' 휘성 "행사? 노인정 빼고 다 해봐" 폭소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라디오스타' 가수 휘성이 행사의 왕 면모를 뽐냈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휘성은 MC들로부터 '휘성이 아주 잘 나간다. 행사로 바쁘다던데, 요즘도 행사철이냐'라는 말을 들었다.

휘성은 "노인정 빼고 다 해본 것 같다"라고 답해 폭소를 유발

했다.

그는 "내 노래에는 발라드부터 댄스곡, 클럽곡이 다 있다"라며 "재미있게 '떼창'할 수 있는 노래도 한다"라고 설명, 행사에서 많이 찾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휘성 외에도 래퍼 썬디와 우원재, 개그맨 이용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ill@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11)

내 양심은 나만을 위해 쓰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한 나도 그의 얼굴을 보면 회한이 폭풍처럼 몰려오는데 말이야. 내가 언뜻 말을 비쳤더니 너를 존중해서 그러는 거래. 웃겨. 존중은 개뿔. 난 남자들의 속성은 여자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 역사적으로 남자가 칼을 뽑을 때는 나라와 여자를 위해서였지. 그가 운동권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도 다 위장된 양심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다 한두 번씩 달려들어갈 때 그는 한번도 달려들어 가지 않았어. 무늬만 운동권이고 무늬만 사랑인 뭐 그렇고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지. 헐~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가 부르짖던 애국도, 사랑도 그의 무능함과 함께 소멸되었어. 그는 지금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면서 근근이 먹고 살아. 풍요롭게 산 남편은 어떤 줄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비비 꼬이지 않았어. 남편은 감정에 대한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더군. 감정의 손실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면 생이 십 년, 이십 년 아니 평생을 그 손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부모 밑에서 산 사람들만 사는 일에 쫓아서 눈치보며 사는 거야.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내가 운이 좋아서 저 남자를 만

난 거야. “
 밖에서 난 화분을 하나 들고 들어오는 남자를 턱으로 가리킨다. 남자가 들어오다 말고 잠깐 목을 숙여 내게 인사를 한다. 나도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를 한다. 남자는 다부진 몸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다. 경쾌한 목소리로 마당을 쩡쩡 울리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 오기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은미와 나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남자의 목소리가 드나들자 우리의 이야기도 조금씩 목소리도 커지고 빨라졌다. 그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졌다.
 “저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당신 눈이 이제 허공을 밟지 않는군’ 이러는 거야. 내가 그와 헤어진 뒤에 말이야. 저 사람이 알고 한 말인지 정말 내 눈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상관없어. 알았던 몰랐던 변한 것은 없으니까. 난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 애가 딸린 나이 든 할아버지와 살겠다고 나선 이유는 경제적 풍요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것인데 그걸 못하면 내 청춘이 아까워서 어찌 살겠어.
 배짱이 생겼어. 배짱이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 이혼을 한다 해도 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속에서 비롯

된 것이니 내가 얼마나 속물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 자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하니? 저 사람 가족들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죽을 똥 샅했지만 저 사람 내 치마 잡고 놓지 않더라고. 사랑해서 한결혼도 아니고 섹스도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우린 그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나 다름 없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 마누라 하나 멋대로 살게 해 줄 수 없다면 다 관두겠다고 하는 거야. 난 ok!! 하고 저 사람 아이들에게만은 정말 정성을 다했어. 딱 그거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뭐 돈이 있으니 그런 일들도 다 식은 죽 먹기더라. 애들도 착했고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결혼의 의무가 사랑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나처럼 필요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꽤 견고하다는 거야. 어느 한 쪽이라도 자신이 필요해서 의무를 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그 오래된 관습은 꽤 괜찮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덕분에 난 미친년처럼 그림 속에 빠져 살 수 있었어. 저 사람은 나의 아주 훌륭한 물질적 프로바이더였는데 지금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정신적 프로바이더가 된 거야. 간혹 봄 아지랑이같이 순한 마음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가난하게 살았다

면 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 아마 악지만 남아서 동네 여자들이랑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상스러운 여자가 되어 있을 거야.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은미의 자세는 늘 흐드러지게 핀 백일홍 같다. 진한 향기를 풍기고 걷는 걸음마다 꽃잎이 떨어진다. 긴 치마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앉을 때 슬쩍 보이던 은미의 허벅지는 아직도 육감적인 냄새가 난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거침없이 결길로 가는 감정을 잘라내고 목표를 위해 행동을 거침없이 옮기는 하루하루의 삶들은 시간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넷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심재철 · 김동연 40분간 설전, 대정부질문 난타전

(서울=뉴스1) 박기호, 이후민, 김세현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로 고발을 한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장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40분간 설전을 벌였고 동시에 여야 사이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형성됐다.

이날 5번째 대정부 질의자로 연단에 오른 심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이 불법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고 자료 검색 루트도 적어도 6번 찾아야 하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도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그러자 심 의원은 "우리를 범죄자로 모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부총리 역시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정부 관계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계속된 이견으로 질의와 답변에선 다소 감정이 섞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의원님이 해외출장 중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말했고 심 의원은 "잘못됐으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 논란의 여진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안되는 심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봤고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자가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비인가 영역에 침입해 자료를 다운받고 공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날 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심 의원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내는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라며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고사하고 (자료 입수) 절차를 갖고 입을 맞춰서 덮는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다고 진실이 덮여지지는 않는다"며 "한국당은 반드시 실체를 밝힐 것이고 신(신) 적폐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심 의원 논란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반해 야권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열거했고 이학영 의원도 "대기업 육성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에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할 때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가 늘었느냐"며 이날 연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goodday@news1.kr

보스톤 국제선 셸터 모금 골프 대회

NAICFM-Boston Fundraiser Golf Tournament Shelter for Peace House

올해는 견디기 힘들도록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지만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면 분명히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없는 사람들은 더 춥고 더 배가 고플거라는 염려속에서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절실한 마음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국제선에서 셸터모금 골프대회로 모금하여 힘들고 집없는 이민자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성원 부탁 드리면서 알밤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모금 골프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즐거운 골프게임을 즐기시며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시며 보람된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초대드립니다.

국제선 임원 일동



SATURDAY, OCTOBER 13, 2018 AT 12:30 PM

Merrimack Country Golf Club : 210 Howe St. Methuen, MA 01844

\$120.00 Per Golfer Golf Package Includes:

- Golf Carts
- Lunch & Drink
- Dinner @ Merrimack golf club house function hall
- Awards/Raffle/ Auction Items

Check Payable to :NAICFM-BOSTON
Mail to : 70 Howe St. Methuen, MA 01844
Contact: 978-828-1383 Insook Vallario
or Bob Campbell 978-833-0065
Join celebration Dinner for \$40.00

HOLE SPONSORS

Young Sim Middleton, Jin Hee Couter, Insook Vallario, Lee LeBlanc, Kim Walsh(Q. Cleaners), Chong A Arnold(We Care Maine), Yang Myung Duk, Happy Time Laundromat, Chong Ju Kim(Qwe Care New Hampshire), Kim Day(Daven Cleaners), Yu da kun & son Panda cleaners(Newburyport), Myung Hee Davis, Kim Chang sik(New York Cleaners), An/Campbell(Green Grid Energy), An Kyung soon(Ann's Cleaners), Eric An, Robert Campbell, Rob Barnett, Haeyoon Jacobus(Keller Williams Realtor), JC independent cleaners, Joohyung Lee(Sunday General Store), Ju Hyung Lee, Ki Whan Lee(상록회 회장), Kay Dong Lee Associates, Susan Campbell MBA Interiors, Yong Ae Lee, 김영기, 유대근, John Reynolds, 서울설령탕, 보스톤코리아

신영의 **세상 스케치**

66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Korea Week 행사에 감사하며...

지난해 10월 26일 MA 주청사에서 '한국의 날' 첫 기념식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생각하면 가슴 벅찬 날이었다. 그날 더욱 감격스러웠던 기억속에는 '한국의 날' 첫 기념식을 맞이하기까지 오랜 노력과 끈기와 기다림으로 애쓴 분이 바로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이었다. 한인 모임 행사장에서 만나는 분이지만, 언제 만나도 맑고 밝은 성품은 30여년이 다 되도록 봐도 변함이 없다. 시민권 협회 회장을 오래도록 역임하면서 한인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분임을 안다.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이경해 회장은 기념식장에서 축사를 하며 뜨거운 눈물마저 흘리고 말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김용현 총영사님이 부임하셨다. 부임 후 여러 활동과 함께 한인들의 문화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기에 이번 코리아 위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시작되어 2018년도 9월에는 KOREA WEEK의 행사 일정이 발표되고 뉴잉글랜드의 보스턴 인근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 것이다. 여섯 개 정도의 프

그램이었지만, 모두 참석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던가. 각자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시간을 맞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좋았다.

9월의 행사에는 National Foundation Day Reception, Korean Literature (Sijo & Pansori), Cooking Demonstration & Tasting w/ Chef Tony Yoo, Harvard Belfer Center Seminar, Movie Night "The World of Us", Philharmonia Orchestra Special Concert,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의의 주최로 김용현 주보스턴총영사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 세미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두 참석하고 싶었던 행사들이었다. 이렇듯 우리 한인사회에 서로의 마주함과 나눔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

두번 째 '한국의 날'을 맞은 것이다. 이제는 한인들뿐만이 아닌 미국인들과 더불어 타 국민, 타 인종 그 누구와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활짝 열어놓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서로에게 유익

하고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미 갈등과 해결점을 앞두고 얼마나 어수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가. '정말, 가능할까?'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4.27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아침은 참으로 감동의 순간이었다. 참으로 멀고도 먼 그 길은 서로 한 발짝만 옮기면 닿을 수 있는 좁고도 낮은 판문점 콘크리트(시멘트) 벽이었다.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그 날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을 염원하는 날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감사와 감동의 날이었다. 서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천천히 평화로의 시작이길 기원했던 간절한 시작이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9일 메드포드 소재 텡스 대학교에서 김용현 총영사님을 모시고 "Peace, A New Future(Jour-

ney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있어 다녀왔다. 우리는 모두 평화의 길목에서 서 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 속에서도 우리는 심장과 같은 설렘과 두려움의 현실 속 주인공으로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 시점이 심장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이란 것이다.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선택이 최우선의 길이어야 한다.

이번 Korea Week에서 한국의 날 행사와 음악회 시조, 판소리, 음식 그리고 강연 등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주어졌다. 이처럼 우리 한인들뿐만이 아닌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타국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다. 우리 것을 알리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 않은가. 해마다 행사는 이어질 것이니 주변의 한국 친구들뿐만이 아닌 외국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서 더 많은 이들과 나눔의 장이면 좋겠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를 위해 주관해주신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님과 영사님들 그 외의 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안치과



김화옥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몇년전 이다. 한국을 방문중이었다. 병원 선전간판이 눈을 잡았다. '뭐래?'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나역시 아내가 병원에 다녀오면 묻는 말이다. 아무것도 할 수없지만, 걱정되니 묻기만 하는 거다. 대답이야크게 다르지 않다. 뭐, 괜찮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배울 것이다. 나도 배웠으니 말이다.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씹어야 맛아닌가 말이다. 시인은 씹을 적에 푸른 우주가 보인다 했다. 나는 푸른 우주가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일게다.
밥 먹으며

쌀알 하나에 스민 햇살 잘게 씹는다.
콩알 하나에 배인 흠내음 낮익은 발자국, 바람결 되씹는다.
내 속으로 펼쳐지는 푸른 우주를 본다. (이응인, 푸른 우주)
들은 우스개 소리가 있다. 노부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마주 앉아있었다. 음식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노부부만 오물오물 음식을 씹어 삼키고 있더라. 한편, 할아버지는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염없이 할머니가 먹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었다. 보다 못한 누가 이유를 물었다. 대답이다. '내 틀이를 지금 할망이 쓰고 있거든. 할망 식사가 끝나면 돌려받아 먹으려고'
옛날, 한국에선 동네의원 이름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김치과, 박내과, 이산부인과. 아내는 아직도 그렇게 부른다. 그제 이해가 빠르긴 하다. 우리 가족은 안치과에 다니는데, 간판은 안치과가 아니다. 안치과에 같적이다. 치료에 들어가기전 내가 물어봤다. 치과의사는 본인의 치아는 누가 치료하는가? 대답이 간결했다. 쉬운건 본인 스스로, 어려운 수술은 친구 치과의사가 한다했다. 한국속담이 떠올랐다. 중이 제머리는 깎지 못한다. 치과의사도 제 이는 제손으로 치료 할수없다. 이제내 차례가 되었다. 진료의자에 앉으면, 의사는 말을 시킨다. 물론 입은 벌려져 있으니 대답할 수는 없다. 치과 치료

중엔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은 있으되 말할 수없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대답할 수없는 거다.
안치과에게 내가 또 물었다. '튼튼했던 이가 왜 예전만큼 시원치 않은가?' 돌아온 대답이다. '수십년 사용했음을 기억하시라.' 아, 그렇구나.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도 몇번씩, 맹렬히 수십년을 한결같이 썼구나. 아, 감사해라. 난 아마도 아내의 틀이를 빌려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썰렁개그중 한 토막이다. 치과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齒 없으면 잇몸. 안치과도 이개그를 싫어 할 것이다. 사족蛇足이다. 이 질문은 안치과 간접광고가 아님을 밝힌다. 안치과는 내 고등학교 후배다.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유키 19:20)



고국방문 의료관광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은 고객님의 병력에 따라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의료관광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5등급 병원(최고 등급)

종합병원 세란병원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

[종합검진 기본 항목]

세란병원은 100여종의 검사로 구성된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꼼꼼하게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는 당일 또는 2~3일 이내에 발송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5등급 병원(최고 등급)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은 의료관광 휴람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의료문제를 최급에 시술에서 편리한 검진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휴람 당일 종합검진	남성 70만원 → 49만원	여성 70만원 → 49만원
휴람 숙박 종합검진	남성 100만원 → 69만원	여성 100만원 → 69만원
휴람 정밀 숙박 종합검진	남성 180만원 → 125만원	여성 180만원 → 125만원
휴람 VIP 숙박 종합검진	남성 350만원 → 244만원	여성 350만원 → 244만원

라식 라섹의 차별화/세개화된 연구진로 진단과 치료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1. **휴람 안 종합검진 패키지** (보안검진+4종/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안과 전문의 1:1 상담,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안구 초음파, 안과 전문의 상담
2. **노안 없는 노안성 백내장 수술** (노안+백내장)
안과 전문의 1:1 상담,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안구 초음파, 안과 전문의 상담
3. **400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안과 전문의 1:1 상담,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안구 초음파, 안과 전문의 상담
4. **2000 라식/라섹**
안과 전문의 1:1 상담,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안구 초음파, 안과 전문의 상담

평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 1. 원시, 근시, 난시,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등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 2. 안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3. 백내장 수술 후 노안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4. 안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밀가식 모발이식센터의 선두주자

모아름 이규호 모발이식센터

“오직 비절개 시술만을 고집합니다”

해마다 한발만 최선을 다하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모발 손실률 3% 이하로 성적을 90% 이상을 자랑합니다. 수술 후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MIT(삭발)	M2G(비절개)
병검 정상가	7,700원	13,200원
휴일 할인가 (5%)	7,300원	12,500원
1모발당 휴일 할인 비용	-400원	-700원

수술 전/후 모습

비밀가식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

빠른 성형보다는 바른 성형!

노상훈 성형외과

노상훈성형외과는 고객의 미감을 최우선 여기고 고객 만족 천분의 목적에
취급되어 이점대응을 찾아드리려 노력하며 행복을 나누는,

1. 안전을 동반한 미용대응을 지향하는 올바른 성형
2. 풍부한 경험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급부터 수술까지 직접
3. 상담, 수술, 최후까지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4. 최강 진료실은 1:1 맞춤형 진료

노상훈성형외과 성형 EVENT

상안검 497만원 → 154만원	눈썹하거상 599만원 → 187만원	하안검 497만원 → 154만원
안면거상 559만원 → 440만원	안면거상 + 목거상 889만원 → 660만원	이마거상 495만원 → 440만원
코성형 (콧대+코끝) 330만원 → 298만원	Dr. 노상훈 성형외과	

Dr. 노상훈 성형외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1101호 (11월 15일) 11:00 ~ 19:0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1101호 (11월 15일) 11:00 ~ 19:00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1101호 (11월 15일) 11:00 ~ 19:00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1101호 (11월 15일) 11:00 ~ 19:00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4) 숨어있는 투자비용

전기세, 수도세, 전화 요금 등은 얼마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돈을 냅니다. 물건을 살 때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가격을 비교한 다음 구매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물건값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면서는 부과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금융업계만이 비용에 대한 고지서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숨어있는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주식시장(S&P 500 Index)의 연평균 수익률은 11.1%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돌아온 수익률은 단 3.7%라고 보스턴에 있는 델바(Delbar)라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 7.4%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익률 7.4%란 투자한 돈이 10년 후면 2배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

률입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와 경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적을 수뿐이 없고 오랫동안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금(Cash, Money Market):

은행계좌 등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 투자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계좌(Brokerage Account)에 있는 현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현금에 대해서도 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메릴린치나 찰스스왑과 같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은행 이자만큼만 지급(How your brokers can make 10 times more on your cash than you do, Jason Zweig, WSJ, August 3, 2018)한다는 내용을 월스트리지는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벤가드(Vanguard)는 투자자의 현금에 이자율 약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Commission):

미국의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은 일반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투자가 아니기에 투자자 대부분이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상품을 팔아야만 하고, 팔아주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은 본인을 재정설계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일즈맨(Salesman)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상품이라는 물건을 팔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비싼 상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은 평생 수입을 보장한다는 어뉴어티(Annuity)와 같은 투자종목입니다.

뮤추얼 펀드 세일즈 로우드(Class A, B, or C Share):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

사는 고객의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재정설계사가 어떤 특정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회사는 재정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한 예로 아메리칸 펀드(American Fund), 오펜하이머(Oppenheimer), 풋남(Putnam)과 같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5.75%가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웰스 파고(Wells Fargo)와 같은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일(The two-year Wells Fargo horror story just won't end, Matt Egan, CNN, September 7, 2018)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재정설계사 역시 본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투자경비입니다. 투자경비를 정확히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46 화랑세기花郎世紀, 9세 풍월주風月主 비보랑秘寶郎(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603년, 신라 진평왕 재위 25년, 고구려는 영양왕14년, 고구려가 신라를 침범했다. 당시 백제는 무왕 재위 4년이었으며, 60여년 후 한 반도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당대의 호걸들이 동년에 출생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말엽의 정권을 좌지우지할 연개소문이 태어났으며, 236) 신라에서는 후에 태종무열왕이 될 김춘추가 태어났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무왕의 장남인 부여의자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있었다. 237)

한편 풍월주 비보랑의 장남 세호랑 역시 화랑이었다. 하지만 30세가 되도록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여 그저 한 명의 낭도로 활동하고 있었다. 비보랑은 세호랑이 아들이지만 공이 없었기에 절대로 진급시키지 않았다.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좌후左后의 지위에서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미실과도 다투는 용기와 정의감이 있었던 그는 자신의 아들 세호랑을 포함한 모든 낭도들에게 공평한 잣대를 엄정하게 사용하였다. 매사를 사리에 맞고 공명정대하게 임한 그는 많은 존경을 받았으며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 늘어났다. 후일 그가 죽어서 장례가 치러질때는 일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진평왕 25년, 고구려가 한강지역으로 침입하였고 왕은 친정에 나섰다. 많은 화랑들도

출전하였다. 상선 비보랑은 아들 세호랑과 함께 선봉에 나서길 자청하였다. 당시 비보랑은 54세였고 세호랑은 기록은 없지만 장남인 관계로 아마 30세가 넘었으리라고 추측해 본다. 격검술이 신기에 달한 문노의 수제자답게 비보랑은 아들을 데리고 한강지역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비보랑은 화랑의 초년 시절부터 문노의 제자로 문노의 격검술을 비전秘傳받았다. 그런 비보는 문노의 수제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첫 아내 세진은 지아비의 일을 알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남편 비보로 부터 격검술을 배웠다. 그리고 장남 세호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야 마땅하다며 그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식들을 화랑도 정신에 입각하여 훈육하고 수련시켰던 세진 낭주, 그는 불행하게도 병으로 일찍 죽었고, 장남 세호랑은 무예에 그다지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였기에 사사로움이 전혀 없었던 아버지의 밑이라 초기 화랑생활은 아무런 빛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03년 고구려의 침입은 세호랑을 '군계일학'으로 만들었다. 비록 아버지 비보랑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지만 그는 '한수漢水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올렸다. 비보랑과 세호랑 부자가 선봉장이 되어 누빈 종횡무진으로 전장의 승리는 신라에게로 기울었다. 이에 흡족한 진평왕은 비보랑에게 보답하고자 상賞과 위位를 내리려고 했다. 하

지만 비보랑은 자신의 공을 모두 왕의 것으로 미루고 모든것을 사양하자 진평왕은 그의 깊은 충성심에 더욱 감동하여 대신 그의 아들 세호랑에게 6등급의 관등인 아찬의 벼슬을 하사하였다. 이에 비보랑은 참으로 감격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나의 아들이다. 또 한 너의 어머니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며, 죽은 첫 부인 세진의 소원대로 늙은 한 장부가 되어 전공을 세운 아들에게 어미의 소원을 상기시켰다. 이후로 세호랑은 격검술을 더욱 연마하였고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였다. 비보랑은 출중한 부하들은 많이 배출하였다. 그의 부하들은 화랑도 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도 많이 나갔는데 비보랑은 늘 그들에게 정사에 삼가 할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문노의 수제자답게 격검술이 따를 자가 없었으며 죽는 날까지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법흥왕의 손자이다. 그의 아버지 비대전군은 법흥왕과 옥진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옥진은 처음에 박영실에게 시집갔는데, 그 결혼식에 친히 참석한 법흥왕이 옥진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만 그를 후궁으로 취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비대전군이 태어났다. 비대는 후궁의 몸에서 낳지만 법흥왕의 장남이었다. 왕후 보도부인 김씨는 딸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만 낳았기에 비대가 차기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지소의 남편(임종 갈문왕 구진) 마저 일찍 죽

었기에 왕위가 손끝에 있었는데, 지소의 최종 선택은 왕후가 되는 대신 아들 삼백종/진흥왕을 왕위에 올리고 태후가 되어 섭정을 하는 선택을 하였다(당시 지소는 박영실을 계부로 맞이하여 박영실도 차기 왕위의 서열에서 다투고 있었다).

236) 연개소문의 출생연도는 확실치 않으며 614년, 617년생 기록도 있다.

237) 의자왕은 망국의 군주라서 그런지 시호가 없다. 의자意慈는 그의 이름이다. 의자왕하면 떠오르는 것이 '삼천궁녀'로 황음무도한 왕으로 인식되지만, 그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로 불렸다. 의자왕의 출생연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룡龍이 615년에 출생했기에 아마도 의자의 출생연도는 595년 전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백제는 660년, 고구려는 668년 멸망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방탄 소년단' 그들의 열정을 말하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 소년단'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방탄 소년단'의 월드 투어 콘서트 티켓이 판매 단 10분만에 동이 나고, 그들의 콘서트를 보기위해 그들의 아미팬은 며칠동안 텐트를 치고 길거리 노숙을 주저하지 않는다. 아시안 아티스트로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두번씩이나 거머쥐는 실력을 보이더니 전 세계의 방송사가 '방탄 소년단'을 초대하려 난리가 났다. 거대한 거물의 케이팝 스타 자격으로 그들은 유명한 엘 디지로(Ellen DeGeneres) 쇼에 두번씩이나 출연하여 기염을 토했고, Taylor Swift, DJ. Khaled가 직접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고 America's Got Talent에 출연하여 축하 무대를 꾸미면서 진행자인 Tyra Banks외에 심사위원인 Heidi Klum, Simon Cowell, Howie Mandel, Mel B. 를 만나는 유명세를 보이고, 전 세계 톱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Nicki Minaj'와 콜라보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방탄소년단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고 있으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진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들의 당당함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봐온 케이팝 아이돌들과는 많이 다르다. 기획사에 의해 우상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아이돌 스타들 처럼 멋있어 보이려 시크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서 인지 그 유명한 쇼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지 않는다. '방탄 소년단'의 리더인 알엠이 통역하느라 바빠보이는 하지만 그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감 있게 '콩글리시'로 자기를 표현한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방탄 소년단'의 아미팬은 "귀엽다", "발랄하다"며 환호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방탄 소년단'이 유엔에 초대되었고 리더인 알엠(RM)은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라는 주제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물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흥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하는지." 그러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그날 저녁 방탄소년단은 지미 팰런(Jimmy Fallon) 쇼에 초대 받았다. 지미 팰런쇼에 등장하며 지민은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지미'와 거리낌없이 농담을 나누며 인사를 했다. 인터뷰 중 지미가 알엠에게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하고 질문을 던졌다. 알엠이 자기 대신 '슈가'에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돌리는 모습에 겸손함과 배려가 느껴졌다. 그때 슈가는 "고 투 그라미(Go to Grammy!)"를 조심스레 표현했다. 그러자 '방탄 소년단'은 다같이 그들의 열망을 소리쳤다. "고 투 그라미(Go to Grammy!)"라고.

그들이 외친 "Go to Grammy!"는 열정에서 나온걸까? 욕망에서 나온 것일까? 열정과 욕망은 뜨거운 감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근본적인 속성은 매우 다르다. 그러다보니 열정과 욕망이 보이는 결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침묵의 수행자 '바바 하리다스(Baba Haridas)'는 열정과 욕망을 아주 적절히 표현한다. '진달래가 연꽃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이다. 그러나 연꽃이 연꽃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닌 자연스러운 열망이다.' 그러면서 '바바 하리다스'는 '하나의 씨앗이 잎사귀 무성한 나무로 자라고 싶어하는 것이 열망이다. 이 열망은 근원에 대한 동경이다'라고 표현한다. 즉 자신의 씨앗을 심고 자신의 나무가 잘 자라게 바라고 보살피는 마음은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씨앗이 아닌 남의 씨앗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거나, 자기 씨앗이 아닌 남의 씨앗을 탐하는 마음은 욕망이라는 것이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욕망하게 될 때 오는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욕망은 자신만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방향하게 만들며, 갖고 있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만다. 그 반면, 열망은 자신에게 희망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하는 용기를 주고 끈기를 심어준다.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주체-중개자-대상'이라는 삼각형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곧 '나'라는 주체는 항상 '중개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대상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즉 모든 욕망은 타인이 매개되어있는 욕망이며, 자신의 욕망이 자발적이며,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는 것은 낭만적 환상, 낭만적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말로를 보면 안다. 박근혜(주체)는 욕심 많은 정치인들의 욕망(중개자)을 통해 한국시민(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펼쳤다. 남에게 더 젊게 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세월호에서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 어른들이 죽어가는 7시간동안 그저 자기 피부를 젊게하는데 집착하여 청와대에서 피부 수술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신분석가인 '라캉'은 욕망은 인간적인 근원적인 결핍에서 온다고 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거울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남'을 향해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색깔이라 말할 수 있다. '열망'은 자신이 만든 자연스러운 색깔을 지니기에 편안하고 무한하다. '욕망'은 남들이 원하는 인위적인 색깔이기에 잠시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불편하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열망이나 욕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는 있어도 결과의 끝자락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방탄소년단은 처음 소속사를 고를 때, 남들이 열망하는 YG, SM, JYP라는 멋진 소속사가 아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했다. 브랜드 파워가 없는 회사였지만 그들이 열망하는 음악을 이해하고 아껴주며 확신해 주는 소속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열정을 이해하며 마음으로 통하려 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을 갖는 방탄 소년단 그룹에게 '나는 너희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을 충분히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의심하냐.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격려하며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는 자발성을 강조했다. 대형기획사가 아니었기에 7명의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밀바탕으로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굳은 의지로 피 땀흘려 땀을 연습에 매진 했다. 그리고 그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열망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칼럼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발표한 노래를 살펴보았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랩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유엔에서 알엠의 연설처럼 7명의 방탄 청년들은 아주 어려울적 부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 지, 남이 원하는 욕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음을, 자신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바탕으로 밀바탕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왔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방탄 소년단이 내놓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길'의 가사를 소개하며 칼럼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쉽 없이 꿈꾸던 중 날 묶어버린 현실의 뿔. 오 그 청춘의 뿔, 뜨거운 가슴은 차가운 머리에 저버렸어. (Damn) 그렇게 내 선택이 옳다며 맹신하던... (중략) 더. 바보는 되기 싫었던 난 이곳에 왔고 3년이 지나갔어... (중략) 가족없이 난 외롭게도 서울에서 맞는 세 번째 봄 데워가 코앞이면 걱정없어질 줄 알았어 달라질게 없는 현재에 난 눈을 감았어. 현실은 달랐고 주위에서 날 말려도 빛도 안 보이는 터널들을 나 홀로 걸었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곱. 맨발이 아닌 방탄이란 신을 신고 앞으로 나가야지. 내 가슴 안에 있는 별들을 밝혀 이젠 날 새롭게 비춰봐. 세상이란 백지에 방탄도 새겨봐. 더 볼 커진 내 미련 걸어가. 웃음을 지어 먼 훗날 Ha Ha 난 달라졌을까? 다른 길을 택했다면. 멈춰서 뒤돌아봤다면. Oh hey ya, hey ya. 난 뭘 보게 될까 이 길에 끝에서 니가 서있을 그곳에서 Oh hey ya, hey ya...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법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고국방문 성형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예뻐(젊어)지고 싶은 마음 & 잘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경험 많은 휴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은 고객님의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수술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성형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전문성이 다른 시너지 성형외과의 풍부한 임상경험!

시너지 성형외과

시너지 성형외과는 약속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 적정 수술 횟수를 제한하여
‘쇄도우닥터 & 대리수술을 사전에 차단’ 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완벽한 수술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1 맞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
-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한 검증된 수술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
-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type 01

안면거상+
이중턱제거 ~~880만원~~ **660만원**

PRP+
지방이식 ~~300만원~~ **220만원**

type 02

3D입체분석
가상성형 시스템

가슴성형 ~~550만원~~ **473만원**

※ 보험료, 수술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ype 03

상안검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187만원~~ **154만원**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막안면학회 정회원



황진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막안면학회 정회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혜택과 영주권 신청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대로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분들은 영주권 신청, 신분변경 또는 신분연장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세칙에 지난 9월 21일 서명했고 이 세칙은 60일의 의견 수렴 후 최종법안이 됩니다.

세금도 많이 안내는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가장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수혜를 막는 것이니 문제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스피드리미트가 65마일인 경우 운전자는 쉽게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위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관련법들 같이 이해하기 힘든 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러한 법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세칙에 포함된 하우징 프로그

램 같은 경우, 주 (state) 또는 타운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신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혜택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재정적 자격조건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혜자도 합법적인 수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니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번 세칙이 법으로 발효되도 앞으로 주 또는 타운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이러한 복지혜택이 앞으로의 영주권 신청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를 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번 세칙은 실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법을 준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반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세칙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실행을 어떻게 할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법은 영주권 신청 시 공공복지혜택을 수혜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모든 것들도 고려해 이들이 사회적

빈곤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이민국 조사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지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쪽에서 먼저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학창시절에 간단하게나마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해 배우셨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모든 법률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일에 대한 처벌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칙에는 이민관련 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혜택여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간단한 원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 원칙은 모든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한들 이전에 신청된 신청서들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없앤다해도 어제 신청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신청서는 앞으로 십년 넘어 걸리더라도 없앨 수 없습

니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들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상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이번 세칙이 최종법안으로 실시되면 약 38만 2,000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이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총 인구가 약 3억 2천 5백만입니다. 인구의 약 0.12%에게 주는 혜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상 11월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다른 목적으로 이민사회를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중단하려는 분들입니다. 아직 세칙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설사 확정되더라도 어떤식으로 실행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매사추세츠에서 파산하기

‘인간만사 새옹지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선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잡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제대로 파산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파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이 고려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파산입니다. Chapter 7 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고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반면 Chapter 13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고 수입수준도 높지만 그만큼 빚도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Chapter 7 파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원칙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에서 정한 소득 평균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2018년 현재 매사추세츠주 법원 소득 평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족 - 연 \$62,660, 2인 가족 - 연 \$80,180, 3인 가족 - 연 \$98,758, 4인 가족 - 연 \$123,864. 만약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 소득 평균치보다 높을지라도, 파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Q. Chapter 7 파산은 모든 종류의 빚을 청산해 주나요?

많은 분들이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빚이 탕감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Chapter 7 파산이 모든 종류의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벌금, 대부분의 세금과 학자금 대출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대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용자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청원서에 기입하지 않은 빚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에 파산진행을 도와드린 고객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수십만 불이 넘는 카드빚을 청산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의 채무 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저희에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수 년전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5만불씩 빌리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차용증도 없었던 파산을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엄연히 다르기에, 저희는 고객과의 상의 후 이 두 채무도 파산 청원서에 포함시켰고 고객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히 정리해서 변호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제 모든 재산이 처분되어 빚 갚는 데 쓰이고 전 빚 탕감이 되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청자의 빚을 처분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 줍니다. 이 때 명심할 부분은 신청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해 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Chapter 7 파산 신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규모는 이 면제범위 안에 있으니 Chapter 7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Core Services

1. Saturday Lock-In

SAT1 / SSAT class
Essay Writing
Practice tests
Teachers' evaluation



2. Admission Process

Secondary School / College
School lists
Application form
Essay instruction / Revision
School tour and Interview

3. Guardianship Service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visit and meeting
Test Plans / Registration
Summer activities / Enrollment

2018 Thanksgiving Specials

- SAT 1/SSAT Tests Prep 그룹 수업
- SAT 2 Subject Tests Prep 개인 수업
- Contest Prep 개인 수업
- 학교 교과목 수업 보강

Grade

SSAT: 8, 9학년
SAT: 10, 11학년
기타 수업: All graders available

Date & Sessions

11월 17일(토) - 11월 25일(일)
(22일 Thanksgiving 당일은 휴강)
Session 중간 등록 가능

Tuition and Fees

수업 종류와 시간에 따라 차등
담당자 문의

Daily Schedule

09:00am-12:00pm	SAT1 / SSAT수업(Reading, Writing, Verbal) 철저한 일차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12:00pm-01:00pm	점심 식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구성으로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01:00pm-04:00pm	Practice Test (full test) 선 문제풀을 풀어 보면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04:00pm-05:00pm	Test review & grading 스스로 분석해 보는 테스트 유형과 결과, 그리고 오답 노트 정리로 마무리 됩니다.

저희 보스톤 교육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준비된 교재와 강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SAT1 / SSAT 및 각 중 Subject Tests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